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5월 24일)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1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세계 석학과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前샤카디타인터내셔널 회장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이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세계 비구니 승가 현실 · 과제 조명하다

대행선연구원,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세계 비구니 승가' 주제로 진행
국내외 석학 · 비구니 스님 참석
비구니 승가 현황 · 과제 조명해
묘공학술상 · 학술장학 시상식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연구실장 혜선)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등 내외빈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대행 선사의 삶 자체가 비구니 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성별을 넘어 누구나 출가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를 논의하며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행 스님이 주창한 대행선 기본도량인 한마음선원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다. 오늘은 전 인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면서 "학술은 우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법론의 제시로 이해하면서 함께 가자는 것이다. 수행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수행하면서 함께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주요 내외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묘공당 대행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크게 선양했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오늘 국제학술대회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진단과 해결점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축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비구니 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재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비구니 승가의 현재 상황과 발전 방안을 세계 석학과 비구니 스님이 하나의 주제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동 · 서양을 대표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교 전문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각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비구니계 수계를 받을 수 없는 일부 국가의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前 샤카다카인터내셔널 회장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미국 샌디에고 대학 종교학과 교수)은 티베트불교 내 비구니계 수계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툽텐 쬐된 스님(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은 티베트불교 서구 여성출가자들의 어려움과 극복 노력을 소개했다. 자하니 드 실바 박사도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 복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해 전했다.

또한, 양성평등적 교단 운영으로 비구니 승가와 불교 발전을 이룬 나라도 있었다. 대만 비구니 승가를 소개한 창쉔 스님은 "전후 대만에서 구현된 현대 중국불교 부흥 운동인 인간불교를 통해 비구니들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에서도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역사를 발표한 류팝 스님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비구니 사원이 등장했고, 여성출가자의 수가 남성출가자의 10배가 된다. 불교교육 과정과 대학을 열면 항상 비구니 학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한국 비구니 승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비구니 출가의 급감 원인이 차별적 출가문화와 불안정한 노후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개인주의 문화가 깊이 자리한 승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정신 재건을 강조했다. 또한 종단 내 성평등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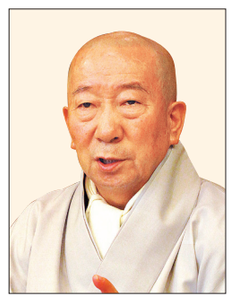
대행선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의 발전 방안으로 △학교 건립 △대행선 연구 체계화 · 대중화 △대행선 국제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묘공학술상 · 묘공학술장학 시상식이 열렸다. 묘공학술상 대상에는 이상호 박사(서강대), 우수상에는 최원섭 동국대 WISE 캠퍼스 강사, 특별상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인경 스님이 수상했다.

〈학술대회 지상중계 4 · 5면〉

관음종 제9세 종정에 홍파 스님 추대

신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
6월 24일 임명장 수여해



대한불교관음종 종정추대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종정추대위원회를 소집해 홍파 스님〈사진〉을 대한불교관음종 제 9세 종정으로 추대했다. 이날 원로원장 법륜 스님(흥륜사 주지)은 "30여 년간 종단 위상 제고를 위해 진력한 홍파 스님께 감사하다"며 "이제 종단의 가장 큰 어른으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했다.

종정으로 추대된 홍파 스님은 "제8세 종정이셨던 남천 죽산 스님 원적 후 오랜 시간 종정의 자리가 비워졌던 만큼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종단 위상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홍파 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관음종은 신임 총무원장으로 현 중앙종회의장 법명 스님을 임명했다. 관음종 종헌종법에는 종정이 총무원장, 호법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4원장을 임명토록 돼있다.

한편, 정오 법명 스님은 자신의 주석사찰인 경남 창녕 법성사서 6월 24일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받는다. 이날은 법성사를 창건한 법성 대법사 탄신 95년의 날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2022년 불교 군종사관후보생 응시 '無'

군승 수급 적신호, 후보생 제도 활성화 필요

군포교 핵심자원 '군승'의 주요수급처였던 불교 군종사관후보생이 무응시로 마감됐다. 군승 파송 미달로 군포교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2년 불교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서 응시자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의 군종사관후보생 파송 인원은 없는 상태다.

불교 군종사관후보생은 2013년까지 평균 경쟁률 3:1 수준으로 응시자가 많았으나 2014년 이후 급감, 2018년 이후 응시자가 없다시피하다가, 2021년 2명이 응시했지만 최종 선발과정서 탈락했다.

국방부 군종과 원공 공석준 군승법사는 "지난해 실제 응시한 지원자 2명의 경우 스님이었다. 군승요원이 아닌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 재학생은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자 감소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수급을 요원 모집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군승요원 지원자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군승 파송 미달에 이어 2023년과 2024년 파송도 현재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군종특별교구는 2023년 국방부 파송 요청 인원 17명 중 예비군승요원으로 11명을 확보한 상태다. 2024년 예비군승요원은 2명으로 예비자원 충원이 필요하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5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 등 종립대학 등에서 예비자원 충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가학생 지원 수년째 '0'
군복무제도 변화 등 반영
재학생 응시 활성화 과제

군승으로 대변되는 불교군종장교 파송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가 과제로 꼽힌다. 이중 수년간 파송 인원이 없는 상태인 불교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에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설명회를 진행한 원광사 주지 지효 손영주 군승법사는 "불교대학 재학생들조차 사병 복무를 선택하고 있다. 군복무제도 변화로 학군단(ROTC) 등 군종사관후보생과 유사한 제도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재학생 입장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획 3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랍 70년을 맞이하신 화산당 월인 대종사님께 조사전을 헌공합니다.

사)대한불교 승가종 화산당 월인 대종사 상좌, 손상좌 324명 일동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2520번길 251 승가사내 조사전 전경


진종당 용성조사님 보화당 석우대종사


대희당 봉암대종사 무진여당 종준대선사


화산당 월인대종사

